

## 나에게 틴스타는 삶이다

이명호 엘리사벳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어느 나라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일이 이제는 그리운 일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으며, 거저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소중하지만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에게서 거저 받은 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에 파견되어 틴스타 수업을 할 때 '성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부끄러워하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도 틴스타 워크숍을 받고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왜 성이란 말만 들어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한 걸까? 어쩌면 성에 대해 아무것도 보를 때부터 우리는 사회로부터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암묵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닐까...

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은 틴스타를 만나며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은 단순히 신체적인 성만을 생각하는 Sex가 아닌 사회적인 성, 지성적인 성, 정서적인 성, 영성적인 성을 모두 아우르는 Sexuality이며, 그 자체가 바로 인격이고, 내게 주어진 성을 완성하는 것은 내 안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도록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생식력 체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는 말입니다. 이러한 나에게 틴스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는 순환 시스템으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생리주기는 월경기, 배란기, 황체기의 명칭으로 구분되어 매월 반복되며 각 기간 내에 분비되는 서로 다른 호르몬은 뇌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몸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정교한 설계를 알면 알수록 생명의 신비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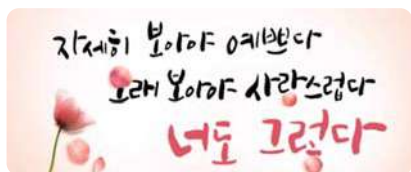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섭리, 바로 그 중심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분비되는 놀랍고도 신비한 '점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자를 난자와 만나게도, 못 만나게 막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뚜렷한 변화 양상이 있어 우리가 예쁜 아기를 갖고 싶을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배란의



시기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만약 점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 생명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던스타를 알기 전에는 귀찮고 불편한 그래서 제발 없었으면 했던 분비물이 바로 이 '점액' 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몸에 대해 이토록 무지했던 내가 점액관찰을 통해 내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를 낳고 더는 출산 계획이 없어 호르몬 분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던스타 워크숍에서 배운 대로 점액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보며 그동안 내 몸이 빼겨거리며 나에게 무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점액관찰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기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인용했던 나태주 시인의 <플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오래 보아야 알 수 있다.  
점액이 그렇다.’

나의 생리주기 안에서 정상 분비되지 않는 점액이 피인기구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4일간 진행되는 위크숍이 끝나는 날 남편과 대화를 통해 시술된 기구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흔쾌히 동의해 준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그 후 하느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자 서서히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몸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성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행동이었는지, 우리 성이 가진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리해 보게 한 계기였습니다.

호르몬은 이처럼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정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배란기에 분비되는 여성화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은 얼굴만 예뻐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예쁜 감정을 갖게 해줍니다. 반면 월경이 시작하기 직전에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은 극심한 신체적인 통증과 함께 성질까지 괴팍하게 합니다. 이렇듯 생리주기 안에서 감정이 요동을 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나 자신에 집중하면 이러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감정을 앎으로써 타인과의 관계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틴스타는 하느님을 닮아 선함을 지향하는 우리가 인격적 존재로서 화학적 물질인 호르몬에 지배당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힘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틴스타 프로그램 중에 '책임(responsibility)'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respond'와 'ability'의 합성어로 '선함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에 대해 나눔을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손은 음식을 잡고 있는 자신을 보기도 하고 실제로 용기 있게 물리치기도 합니다. 다시 학생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선한 일인지 나누고 마무리하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순간의 유혹에 후회하고 나에 대해 실망하고 자책까지 합니다. 생식력에 대한 자각은 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나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올바른 자기 결정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곧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선과도 연결되며,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던 그 순수한 원래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물론 모든 사람과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 우리의 성을 신체, 정서, 사회, 지성, 영성적으로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더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